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대한 국제 학술지의 인용 분석*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Journal Citations to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이 재 윤 (Jae Yun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WoS 인용 특성 |
| 2. 선행연구 | 5.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특성 |
| 3.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 6.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의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얼마나 인용되고, 어떤 논문과 연구자/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통해 선택적으로 확산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WoS)의 Cited Reference Search 검색 결과를 원문 참고문헌과 KCI 논문 목록으로 검증 및 정제하여 국내 논문 957편을 인용한 WoS 논문 978편과 인용관계 1,512건을 확정하였다. 2002-2025년 발행 논문의 WoS 평균 인용횟수는 0.259회, 1회 이상 인용된 비율은 16.3%로 KCI보다 상당히 낮았고, 학술지별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WoS 인용 상위 논문에서는 범용적 방법론,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연구주제, 영문 논문과 해외 연구자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사사표기 유형에 따른 차이는 KCI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WoS 인용은 한국 연구자의 국제 학술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정보학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지로 확산되는 과정에는 특정 주제와 특정한 연구자 네트워크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research published in major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journals is cited in internation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o identify the articles, researchers, disciplines, and research topics through which it is selectively disseminated. To achieve this purpose, search results from the Cited Reference Search of Web of Science (WoS) were verified and cleaned by matching cited references with original reference lists and KCI article records. The final dataset comprised 978 WoS papers citing 957 Korean articles through 1,512 citation links. For articles published from 2002 to 2025, the average WoS citation count was 0.259, and 16.3% received at least one WoS citation, substantially lower than in KCI; differences among journals were also greater in WoS. Highly cited WoS 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broadly applicable methods, internationally shared research topics, English-language publication, and participation by overseas researchers, whereas differences by acknowledgment type were observed only to a limited extent in KCI. WoS citations were driven largely by the international scholarly activities of Korean researchers, while also occurring through overseas research networks, and were used across LIS, computer science, and other fields, particularly in information science-related areas. This study contributes by showing that the diffusion of Korean research into international journals may occur selectively through particular topics and specific research networks.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술지, KCI 등재 학술지, 국내 학술지, 인용분석, 지식 확산, 웹오브사이언스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KCI-Indexed Journals, Local Journals, Citation Analysis, Knowledge Diffusion, Web of Science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8853).

이 논문에는 저자의 선행연구(장연미, 이재윤, 2024)에서 구축한 사사표기 유형 데이터가 4.3절 분석에서 활용되었음.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emexlee@mju.ac.kr / ISNI 0000 0004 6490 0075)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415-441,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41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학술지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욱 외(2023)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주요 학술지의 국제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6%였으며, 주요 방안으로 Web of Science(이하 WoS)나 Scopus와 같은 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국제적 식별체계의 적용이 제시되었다.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해외 인용색인 등재 요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확산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모두 WoS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들 학술지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서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공개된 인용지표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국제적 활용은 국내 연구자의 해외 학술지 출판이나 국내외 학술지의 출판성과에 비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 학술논문 가운데 어떤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서 활용되는지, 어떤 연구자와 주제 및 학문분야를 통해서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WoS 미등재 학술지의 해외 인용을 직접 식별하고, 그 규모와 변화뿐 아니라 인용되는 논문의 특성과 이를 인용하는 주제 및 학문분야, 연구주제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인용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KCI와 WoS에 동시 등재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영

향력 지수는 WoS 미등재 학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OpenAlex가 있지만, 검색해보면 국내 KCI 학술지의 2021년 이후 최근 논문 정보와 인용정보가 상당히 누락되어서 한계가 크다. 반면 WoS의 Cited Reference Search는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가 WoS 논문의 참고문헌에 포함된 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서지정보의 불완전성과 오류를 정제한다면 국내 학술지의 해외 인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요건,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지 출판, 국내외 학술지의 출판과 인용 특성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WoS 미등재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실제로 얼마나, 누구에게, 어떠한 분야와 주제에서 인용되는지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WoS의 Cited Reference Search를 활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이 WoS 등재 논문에서 인용된 현황과 그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Cited Reference Search 기능은 등재지 논문의 인용 파악과는 다르게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식별된 결과를 검증없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중복이나 식별 오류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색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제를 거쳐서 국내 학술지의 WoS 인용 규모와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KCI 인용성과와 비교하여 국내 영향력과 국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WoS에서 인용된 국내 학술지와 논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인용한 논문의 출처 학술지, 저자 소속 국가와 기관,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성과 중에

서 어떤 연구가 선택적으로 인용되고,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떠한 경로와 범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WoS 인용 규모와 시계열적 변화는 어떠하며, KCI 인용성과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WoS에서 인용된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은 인용 수준, 연구주제, 작성 언어 및 인용 경로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출처 학술지와 저자 소속 국가 및 기관은 어떻게 분포하며, 어떤 연구자 및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인용이 이루어지는가?
- 연구문제 4.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WoS에서 어떤 학문분야와 연구주제의 논문에 의해 인용되며, 그 활용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후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 인용된 국내 학술지와 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루고, 5장에서 국내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출처와 저자,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인용을 통해 해외로 확산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논의한다.

2. 선행연구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국제적 인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와 가시성,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활동, 국내외 문헌정보학 연구성과의 비교, 국내 주요 학술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특정 국가 학술지의 국제적 가시성, 학술지의 국가 지향성, 국내 인용과 해외 인용의 차이와 지식의 공간적 확산을 다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제적 가시성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건이 검토되어 왔다. Kim(2010)은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편집위원과 해외 저자의 비율 및 인용지표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국제적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인용성과와의 뚜렷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신은자 외(2015)는 국내 학술지 143종을 분석하여 영문 출판, 외국인 편집위원과 저자, 온라인 투고 시스템, 영문 웹사이트, 국제 인용색인 등재와 글로벌 유통을 국제화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윤정원(2024)은 학술지 국제화를 영문 출판이나 해외 인용색인 등재에 한정하지 않고, 언어적 제약이나 지역적 제약 없이 연구성과가 생산 공유 및 접근과 재이용될 수 있는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학술지의 국제성을 특정한 형식적 요건이나 인용 영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Moed et al.(2020)은 Scopus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저자와 인용자의 소속 국가 분포에 근거한 국가 지향성 지수(Index of National

Orientation)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서는 학술지의 국가 지향성과 인용 영향력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어로 출판되는 학술지가 반드시 저자와 인용자의 지리적 분포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 지향적인 논문이 상당히 존재하였다. 이처럼 학술지의 국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영어 출판이나 국제 인용색인 등재 여부와 같은 형식적 기준과, 실제 저자와 인용자의 국가 분포 및 연구성과가 활용되는 범위와 같은 학술 공동체 기준으로 나뉘어 알 수 있다. 비영어권 학술지가 학술 공동체 기준으로 국제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준의 국제성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형식적 기준의 국제성은 학술 공동체 기준의 국제성을 위한 전제 조건에 가깝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주요 학술지의 국제화 필요성과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종욱 외(2023)는 국내 문헌정보학 4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지와 학술행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제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해외 인용색인 등재와 국제적 식별체계의 적용 등을 국제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종욱과 박혜린(2016)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 문헌정보학 학술지 31종에 발표된 국내 연구자 논문을 분석하여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가 국제 학술지 출판을 주도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연구가 컴퓨터공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은주와 양기덕(2018)도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해외 학술지

논문과 그 피인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분석 대상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연구성과를 비교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해경 외(2019)는 국내 KCI 학술지 4종과 해외 SSCI 학술지 38종의 게재 논문을 비교하여 해외 학술지가 인용성과와 공동연구 비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밝혔다. 조재인(2024)은 국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생산량과 영향력을 국가 및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여 국가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상위 국가의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도서관학, 정보학, 과학계량학에 따라 주요 기여 국가와 국제적 영향력의 분포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Mondal과 Das(2024)도 세계 문헌정보학 연구의 생산성과 인용, 국가와 기관 및 연구주체의 분포를 분석하여 국제 문헌정보학 연구의 전반적인 구조와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외 또는 국제 학술지의 연구생산 및 영향력 구조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WoS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개별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용되는지는 직접 다루지 않았다.

국내 학술지의 자국 내 역할과 국제적 가시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Tijssen et al.(2006)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0여 종 학술지를 대상으로 국제 학술문헌으로부터의 인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자국 학술지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인용 수준은 학술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학술지는 국내보다 오히려 국제 학술 문헌에서 의미 있는 인용을 받는 경우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학술지는 국내 또는 지역의 연구문제와 연구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출판 매체이므로, 국제적 인용 수준을 학술적 가치와 동일시해서 평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결과는 국내 학술지에서 활발하게 생산 및 활용되는 연구성과와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성과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Wang과 Zhang(2018)은 물리학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소속 국가에서 발생한 국내 인용과 그 밖의 국가에서 발생한 해외 인용을 구분하여 시간에 따른 인용 축적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용은 논문 발표 초기부터 더 빠르게 축적되었고 약 3.5년 후 정점에 도달한 데 비해, 해외 인용은 훨씬 늦은 약 11년 후 정점에 도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동일 국가의 연구자들이 학술대회, 학회, 공동연구와 비공식적 교류 등을 통해 서로의 연구를 더 일찍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적 근접성의 효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술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거리의 제약없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시대에도 실제 연구성과의 발견과 활용 및 인용이 국내 연구공동체와 해외 연구공동체에서 동일한 속도와 경로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Wang et al.(2024)은 국내 인용과 해외 인용의 차이를 더욱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검토

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논문에 대해 저자의 소속 국가에서 발생한 국내 인용과 그 외 국가에서 발생한 해외 인용을 구분하여 국제공동연구와 인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제공동연구 논문은 국내 인용뿐 아니라 해외 인용도 더 많이 받았으며, 이는 국제공동연구가 연구성과를 여러 국가의 연구 네트워크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확산을 확대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저자의 소속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축적되는 양상을 보여, 국내 연구공동체에서의 높은 가시성과 연구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본국 효과(home country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연구공동체에서의 영향과 국제적 확산에는 서로 다른 지식 확산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 사이에도 연구영역과 인용관계의 차이가 보고되어 왔다. 정유경(2023)은 국내 문헌정보학 4종 학술지의 연구영역 중첩을 분석하여 정보관리학회지가 정보기술과 정보학의 비중이 높고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지식 및 정보검색 등의 주제에서 다른 학술지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혜진(2024)은 4종 학술지의 자아 인용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세 학술지에서는 국내 4종 학술지가 주요 피인용 학술지의 최상위를 차지한 반면 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JASIST가 최상위 피인용 학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사이에 주제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가시성은 국제 인용색인 등재 여부나 영어 논문 게재 여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동일한 학술 논문도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학술지는 국내 또는 지역 연구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제적 인용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Tijssen et al., 2006), 국내 인용과 해외 인용은 지리적/사회적 근접 정도와 연구자 네트워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시공간적 확산 경로를 보일 수 있다(Wang & Zhang, 2018; Wang et al., 2024).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주요 학술지의 국제화와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활동, 국내외 학술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WoS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논문이 WoS 등재 논문에서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고 있으며, 이를 인용한 출처나 주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학문분야와 연구주제에서 활용되는지를 참고문헌 수준에서 직접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학술지 4종에 대한 WoS 인용을 식별하고, 그 규모와 변화, 인용된 논문과 인용 주체 및 활용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3.1 분석 대상과 WoS 인용 데이터 수집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주제를 포괄하는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학술지명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WoS 미등재인 국내 4개 학술지가 참고문헌으로 나타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Cited Reference Search 기능을 활용하였다. 2026년 6월 10일, WoS의 Cited Reference Search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 4종 학술지 영문 명칭의 각 단어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고, 영문명에 the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모두 검색되도록 다음과 같이 cited work 필드를 대상으로 8가지 명칭을 OR 연산자로 조합한 검색식을 작성하였다.

```
J* of the Kor* Soc* for Inf* Man* (cited work)
OR J* of Kor* Soc* for Inf* Man* (cited work)
OR J* of the Kor* Soc* for Lib* and Inf*
Sci* (cited work) OR J* of Kor* Soc* for Lib*
and Inf* Sci* (cited work) OR J* of Kor*
Lib* and Inf* Sci* Soc* (cited work) OR J*
of the Kor* Lib* and Inf* Sci* Soc* (cited
work) OR J* of the Kor* Bib* Soc* for Lib*
and Inf* Sci* (cited work) OR J* of Kor*
Bib* Soc* for Lib* and Inf* Sci*
```

이 검색식을 적용한 결과 971건이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를 cited work 순으로 정렬하여 전체를 검토하면서 4종이 아닌 다른 학술지이거나 학술대회 논문인 경우가 확실한 10건을 식별하여 제외하였다. 이렇게 WoS에서 인용된 국내 4종 학술지 논문으로 추정되는 961건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을 인용한 WoS 논문 981편의 목록도 함께 확보하였다. 그러나 WoS에서 검색된 961건에는 동일 논문의 중복 표기가 일부 있었고, 서지사항이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되

어 실제 인용된 국내 논문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분석할 수는 없었다.

3.2 참고문헌 검증 및 데이터 정제

국내 4종 학술지를 인용한 것으로 검색된 WoS 논문 981편의 서지사항과 참고문헌(CR) 데이터를 반출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고문헌 전체를 전수 조사하였다. 981편에서 추출한 참고문헌 간략 표기 49,271건을 Excel로 반입한 후, 출처명이 국내 4종 학술지 약칭과 유사한 경우(예: J KOREAN SOC LIB INF)와 DOI 발행기관 식별자가 국내 4종 학술지와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추출하여 국내 4종 학술지 논문 목록과 대조하였다. 비교 대상 논문 목록은 KCI에 등록된 전체 논문 목록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오류와 누락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서비스에서 권호별 논문 목록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이는 KCI 운영 초기인 2000년대 초반 일부 권호의 논문 목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페이지 정보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있었고, 2001년 이전 발행 논문은 대부분 K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WoS의 참고문헌 정보에는 제1저자명, 학술지 약칭, 권 번호 및 시작 페이지만 제공되고 호 번호와 논문 제목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4종 학술지는 각 권 내에서 호마다 페이지 번호가 다시 시작되므로 동일한 권과 시작 페이지를 갖는 논문이 최대 4편까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처에 'Kor*'을 포함해서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추정되는 모든 참고문헌에 대해 제1저자명, 발행연도, 권 번호 및 시작 페이지

를 기준으로 국내 4종 학술지 전체 논문 목록과 육안으로 대조하여 실제 인용 대상을 식별하였다. WoS의 참고문헌 정보만으로 일치하는 논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WoS 논문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참고문헌 표기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WoS의 Cited References 필드에는 다양한 서지 오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오류는 권/호/페이지 정보의 오기 또는 누락, 저자명과 출판연도의 오기, 서로 다른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이 혼합된 데이터 입력 오류, 학술지명 표기의 오류 등이었다. 이런 오류는 DB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학술지 출판 과정에서 참고문헌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KCI 원문 DB에서도 일부 권호의 페이지 정보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인용한 WoS 논문의 원문 참고문헌과 논문 제목, 저자명, 발행연도 등 서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실제 인용 대상을 확인한 후 서지사항을 수정하였으며, KCI DB의 오류도 원문을 통해 바로잡아 인용 대상 논문을 정확하게 매칭하였다.

이상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최초 입수한 WoS 논문 981편 중 인용색인 작업자의 실수, 원문의 참고문헌 표기 오류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는 국내 4종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3편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은 978편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정제 및 식별 과정을 통해 978편의 WoS 논문에서 인용된 국내 4종 학술지 논문은 총 957편이며, 이들에 대한 WoS 인용 횟수는 총 1,512회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

3.3 분석 데이터와 인용토픽 정보 구축

인용한 WoS 논문 978건의 게재 학술지, 학문분야, 저자 소속 국가와 기관 등의 정보는 반출한 서지 정보를 직접 분석해서 확보하였다. 하지만 학문분야 만으로는 상세한 연구주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인용한 WoS 논문의 연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용토픽(Citation Topic) 정보를 Analyze Results(결과 분석) 기능을 통해 별도로 확보하였다. WoS 논문에는 인용분석을 거쳐서 형성된 군집인 인용토픽(Citation Topic)이 지정된다. 인용토픽은 대-중-소(Macro-Meso-Micro)의 3단계로 계층적으로 지정되는데, 2026년 버전 인용토픽은 대분류 토픽 10개, 중분류 토픽 326개, 소분류 토픽 2,493개로 구성된다(InCites Benchmarking & Analytics, 2026). 'Analyze Results' 기능을 통해서 중분류와 소분류 토픽 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논문의 세부 주제 분석을 위하여 가장 상세한 단위인 인용토픽-소분류(Citation Topics Micro)를 분석하였다. 신규 논문이 WoS에 등록된 이후 인용분석을 거쳐 인용토픽이 지정되므로 일부 최신 논문에는 인용토픽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국내 4종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 978편 가운데 948편에 부여된 인용토픽-소분류(Citation Topics Micro) 238종의 빈도 목록을 확보하여 주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4.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WoS 인용 특성

4.1 학술지별 WoS 인용 규모와 KCI 인용 비교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가 WoS 등재 학술지에서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학술지별로 2002년에서 2025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이 WoS에서 인용된 총 인용횟수와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 및 비율을 산출한 후, KCI에서 인용된 동일 지표도 산출하여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된 4종 학술지 논문 5,687편은 WoS에서 총 1,475회 인용되어 논문당 평균 0.259회의 인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WoS에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925편으로 전체의 16.3%였다. 같은 기간 KCI에서는 논문당 평균 인용이 6.488회였고,

〈표 1〉 4종 학술지별 '02-'25 발행 논문의 인용 지표 산출 결과

항목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4종 전체
WoS	논문 인용횟수	537	294	417	227	1,475
	논문당 평균 인용횟수	0.402	0.177	0.264	0.205	0.259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	273	223	267	162	925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	20.4%	13.4%	16.9%	14.6%	16.3%
KCI	발행 논문 수	1,335	1,663	1,582	1,107	5,687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	7.366	6.434	6.648	5.282	6.488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	1,133	1,446	1,380	935	4,894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	84.9%	87.0%	87.2%	84.5%	86.1%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비율은 86.1%에 달하였다. 이 차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연구성과가 국내에서는 활발히 이용되는 반면에 WoS 등재 학술지로 확산되는 범위는 아직 상당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종욱 외(2023)가 국내 문헌정보학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술지의 국제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6%였으며, 국제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WoS나 Scopus와 같은 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국제적 식별 체계의 적용이 강조된 바 있다. 국내 주요 학술지 4종이 아직 WoS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낮은 인용율은 국내 학계가 인식해 온 국제적 유통과 가시성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종 학술지 중에서 정보관리학회지는 KCI와 WoS에서 모두 논문당 평균 인용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WoS에서의 상대적 우위가 두드러졌다. 2002-2025년 정보관리학회지 발행 논문의 WoS 평균 인용은 0.402회로 4종 전체 평균 0.259회의 약 1.6배였고, 2위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0.264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WoS에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비율도 20.4%로서 전

체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KCI에서도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당 평균 인용은 7.366회로 가장 높았으나,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은 84.9%로 세 번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관리학회지가 국내외에서 모두 높은 인용 영향력을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그 영향력이 여러 논문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용도가 높은 일부 논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KCI와 달리 정보관리학회지가 WoS에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정보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 영역이 국제적 인용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유경(2023)은 정보관리학회지가 정보기술과 정보학 전반의 비중이 높으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지식, 정보검색 등 다른 세 학술지와 구별되는 연구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다고 밝혔다. 또한 학술지 내부 논문 간 주제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정보학 및 정보기술 중심으로 비교적 뚜렷한 주제적 응집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일한 4종 학술지의 인용 정체성을 분석한 김혜진(2024)의 연구에서도 정보관리학회지는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 3종

에 해외 학술지(JASIST)가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학술지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해외 학술지의 연구 영역과 중복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학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해외 학술지와 연구 영역이 가장 겹친다는 특성이, 정보관리학회지가 WoS에서 인용되는 것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KCI에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이 87.2%와 87.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WoS에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6.9%로 두 번째였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13.4%로 가장 낮았다. WoS에서 논문당 평균 인용횟수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0.264로 두 번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0.177회로 가장 낮았다. 이는 두 학술지가 문헌정보학의 여러 분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오히려 국제 학술지에서의 인용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특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국내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및 도서관 현장과 밀접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유경, 2023), 이처럼 국내 현장과 제도에 특화된 지식의 생산 비중이 높다는 학술지 정체성이 WoS 인용에는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KCI의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와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비율이 4종 중에서 가장 낮았지만, WoS에서는 두 지표 모두 세 번째로 나타났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도 정유경(2023)의 분석에서 문헌정보학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성향이 있었으므로 국제 학술지에서 인용되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상대적으로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정유경, 2023), 이것이 WoS에서 인용 수준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보다 높게 측정된 것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인용이 높은 학술지가 반드시 같은 정도로 WoS에서도 인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와 달리 WoS 인용은 국제적 주제 확장성이나 해외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영향이 추가로 작용했을 수 있다. 국내 인용과 국제 인용의 차이는 1회 이상 인용 논문 비율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4종 학술지의 KCI 1회 이상 인용 논문 비율은 84.5~87.2%로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에 발표된 논문 7편 중 6편 정도(약 85.7%)는 국내에서 최소 한 번 이상 활용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인용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WoS 1회 이상 인용 논문 비율은 13.4~20.4%로 차이가 7.0%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학술지별 편차가 컸다.

4.2 해외 인용 상위 논문의 특성

이 절에서는 해외 인용의 발생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지 단위가 아닌 논문 단위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WoS에서 6회 이상 인용된 상위 논문 21편을 <표 2>에 제시하였다.

WoS 인용 상위 논문을 KCI 인용성과 및 인용자 특성과 함께 살펴본 결과, WoS 인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형성된

〈표 2〉 WoS 인용 상위 KCI 논문

연번	논문명	학술지명	출판년	인용횟수(순위)	
				WoS	KCI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4	47(1)	883(1)
[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3	19(2)	392(2)
[3]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신문 자료의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3	15(3)	170(5)
[4]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6	10(4)	119(7)
[5]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6	9(5)	144(6)
[6]	Information-Seeking within Negative Affect: Lessons from North Korean Refugees' Everyday Information Practices within PTSD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6	9(5)	5(562)
[7]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6	8(7)	116(8)
[8]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6	8(7)	21(128)
[9]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formation Literacy	정보관리학회지	2011	8(7)	9(373)
[10]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7	7(10)	179(3)
[11]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3	7(10)	105(9)
[12]	지적 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6	7(10)	99(11)
[13]	미국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2	7(10)	37(41)
[14]	계층분석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5	7(10)	24(91)
[15]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의 탐색적 메타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9	7(10)	10(336)
[16]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1	6(16)	177(4)
[17]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2005	6(16)	46(28)
[18]	유행성 질병이 공공도서관의 대출책수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15	6(16)	11(311)
[19]	Th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관리학회지	2008	6(16)	10(336)
[20]	정보문해 자기효능감 척도의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9	6(16)	9(373)
[21]	Social Search in the Context of Social Navigation	정보관리학회지	2006	6(16)	0(880)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연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적용한

논문이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높은 인용을 획득하였다. 〈표 2〉를 보면 네트워크 분석(논문 [1], [5]), 토픽모델링(논문 [2], [3], [7]), 클러스터

링 기법(논문 [4])에 대한 연구가 WoS와 KCI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이 상위 목록에 다수 포함되었다. 다만 이 KCI 논문들을 인용한 WoS 논문을 확인해보면 국내 연구자가 WoS 등재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인용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높은 WoS 인용은 외국 연구자에 의한 직접적인 국제 확산뿐 아니라, 국내에서 축적된 방법론이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지 출판을 통해 WoS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확장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KCI보다 WoS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논문은 영어로 작성되었거나 국제적으로 공유 가능한 연구주제인 경우가 두드러졌다. 영어 논문은 2002년 이후 4종 학술지 전체 논문의 3.8%에 불과하지만 WoS 상위 21편 중에는 4편(19.0%)이나 포함되었다. WoS에서 9회 인용되어 4위인 논문 [6]은 KCI에서 더 적은 5회만 인용되어 562위였고, WoS 공동 5위인 논문 [9]는 KCI 373위에 불과했다. 두 논문은 각각 난민과 부정적 정서, 정보문해와 계량서지학이라는 국제적 관심 주제를 영어로 다루어 해외 연구자의 접근과 인용에 유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논문 중에서도 정보문해 자기효능감 척도, GIS 기반 도서관 입지선정,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과 같이 측정도구나 분석방법을 다른 국가와 연구환경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연구는 KCI보다 WoS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셋째, 저자와 연구 네트워크가 해외에 기반한 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인용 공동체가 WoS 문헌에 형성될 수 있었다. KCI

336위인 논문 [19]의 과학기술 분야 정보요구 및 정보탐색행태 연구는 해외 활동 연구자가 참여한 영문 논문으로서 WoS 16위로 나타났다. 더욱 뚜렷한 사례는 KCI에서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던 [21]번 논문으로서, 저자 전원이 투고 당시 피츠버그대학 소속 해외 연구자였던 이 논문은 WoS에서 6회 인용되었다. 이는 학술지의 발행국보다 논문 언어, 연구주제, 저자 소속 및 후속 연구 네트워크가 실제 인용공동체의 형성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WoS 인용을 곧바로 외국 연구자에 의한 해외 영향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상위 논문의 WoS 인용 중 상당수는 국내 또는 한국계 연구자가 WoS 등재 학술지에서 인용한 사례였으며, 일부에는 원저자나 밀접한 연구집단의 후속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범용성이 높은 연구방법론,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연구 주제, 영어 논문, 해외 연구자 참여가 KCI 논문의 WoS 가시성을 높이는 주요 조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4.3 사사표기 유형에 따른 KCI 및 WoS 인용성과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국내 4종 학술지 논문의 국내 인용과 해외 인용의 차이가 체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사표기 유형에 따른 인용 성과를 비교해보았다. 이는 장연미와 이재윤(2024)이 4종 학술지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논문이 2022년까지 누적된 인용빈도가 6가지 주요 사사표기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를 그대로 이어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전체 사사표

기의 95.9%를 차지하는 교내연구비지원, 연구비지원(NRF), 용역연구(보고서), 학술대회발표, 학위논문-석사, 학위논문-박사의 6가지 유형과 무사사표기 논문을 포함하여 총 7가지 유형 간 인용도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비지원(NRF) 유형만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유형이나 무사사논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규화된 인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장연미와 이재윤(2024)이 사사표기 유형을 분류한 4종 학술지 2,143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현재 파악된 WoS 인용 및 2025년까지 누적된 KCI 인용을 분석해보았다. 논문의 인용빈도를 출판년도별 4종 학술지 논문의 인용빈도 평균으로 나눈 인용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사사표기 유형별 KCI

및 WoS 인용성과는 <표 3>과 같다. KCI 정규화 인용도 평균은 연구비지원(NRF) 논문이 1.354로 가장 높았고, 교내연구비지원 논문이 1.262, 학술대회발표 논문이 1.0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위논문-박사와 학위논문-석사 유형의 정규화 인용도 평균은 각각 0.716과 0.78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연구와 같이 KCI 인용도의 사사표기 유형간 차이 여부를 크루스칼-윌리스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검증결과 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9.292$, $df=6$, $p=.003$). 그러나 효과크기는 $\epsilon^2=.009$ 로 매우 작아 사사표기 유형에 따른 차이의 실질적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DSCF 사후검정에서는 연구비지원(NRF) 유형이 무사사 논문($W=-5.374$, $p=.00276$) 및 학위논문-박사 유

<표 3> 사사표기 유형별 KCI 및 WoS 인용 성과

사사표기 유형	논문 수	KCI 정규화 인용도 평균	WoS 인용횟수 평균	WoS 정규화 인용도 평균	WoS 1회 이상 인용 논문	WoS 상위 10% 논문*
교내연구비지원	440	1.262	0.448	1.215	106 (24.1%)	49 (11.1%)
연구비지원(NRF)	299	1.354	0.438	1.278	61 (20.4%)	39 (13.0%)
용역연구(보고서)	277	0.900	0.220	0.766	44 (15.9%)	19 (6.9%)
학술대회발표	111	1.047	0.315	0.852	19 (17.1%)	12 (10.8%)
학위논문-박사	103	0.716	0.311	0.874	22 (21.4%)	12 (11.7%)
학위논문-석사	144	0.785	0.278	0.954	27 (18.8%)	15 (10.4%)
무사사 논문	832	0.873	0.309	0.947	172 (20.7%)	88 (10.6%)
전체(기타유형 포함)	2,143	1.000	0.338	1.000	439 (20.5%)	222 (10.4%)

* WoS 상위 10% 논문은 동물 순위가 있어서 실제 해당 논문 수는 전체 논문의 10%를 약간 초과함

<표 4> 사사표기 유형에 따른 인용성과 차이 검정

인용성과 지표	검정방법	검정통계량	df	p	효과크기
KCI 정규화 인용도	크루스칼-윌리스	$\chi^2=19.292$	6	0.003	$\epsilon^2=.009$
WoS 1회 이상 인용	Pearson 카이제곱	$\chi^2=8.228$	6	0.222	크래머의 V=.061
WoS 정규화 인용지수 상위 10%	Pearson 카이제곱	$\chi^2=6.235$	6	0.397	크래머의 V=.053

형($W = -4.171$, $p = .04990$)보다 인용도가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비지원(NRF) 유형과 학위논문-석사 유형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번에도 차이는 1.354와 0.785로 비교적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에는 약간 못미쳤다($W = -4.093$, $p = .05838$).

WoS 인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2,143편 가운데 한 번 이상 인용된 논문은 439편으로 20.5%였다. 유형별 인용 비율은 교내연구비지원 논문이 24.1%로 가장 높았고, 학위논문-박사 21.4%, 무사사 논문 20.7%, 연구비지원(NRF) 20.4%의 순이었다. 그러나 크루스칼-윌리스 검증 결과 사사표기 유형과 WoS 인용 여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chi^2 = 8.228$, $df = 6$, $p = .222$), 관련성의 크기도 매우 작았다(크래머의 $V = .061$).

WoS 정규화 인용지수의 백분위순위가 0.9 이상인 상위 10% 논문은 동률 순위가 있어서 실제로는 전체의 10.4%인 222편이었다. 유형별 포함 비율은 NRF 연구비지원 논문이 13.0%로 가장 높았고, 박사학위논문 11.7%, 교내연구비지원 논문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사표기 유형과 WoS 정규화 인용지수 상위 10% 논문 해당 여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chi^2 = 6.235$, $df = 6$, $p = .397$), 효과 크기 역시 매우 작았다(크래머의 $V = .053$).

이상과 같이 WoS 평균 인용횟수와 정규화된 인용도 평균은 교내연구비지원 논문과 연구비지원(NRF)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용역연구(보고서) 유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사표기 유형별 차이는 KCI 정규화 인용도에

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WoS 인용의 발생 여부와 상위 인용논문 포함 가능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한 논문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KCI에서 확인된 집단 간 차이가 WoS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국내와 국외에서 인용과 관련되는 요인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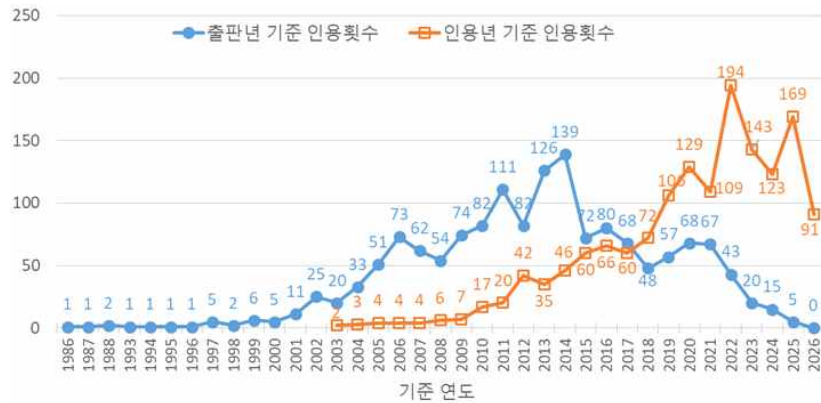
4.4 해외 인용의 시계열적 변화와 인용지수 추정

4.4.1 출판년도 및 인용년도별 변화 추세

이 절에서는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해외 인용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본다. 출판시기와 인용시기를 구분하여 출판년 기준 인용횟수와 인용년 기준 인용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였다.

출판년 기준으로 인용횟수를 집계한 결과와 인용년 기준으로 인용횟수를 집계한 결과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WoS에서 인용된 KCI 논문은 1986년 출판 논문부터였고, 1993년에 출판된 논문부터 건너뛰는 해 없이 각 연도의 KCI 논문이 한 회 이상씩 WoS에서 인용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출판분부터는 연도별 누적 인용횟수가 20회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KCI에 4종 학술지가 모두 등재되어 검색이 원활해진 시기와 일치한다. 약간의 부침은 있으나 2014년 출판 논문이 139회 인용되기까지는 인용이 꾸준히 성장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최소 48회에서 최대 80회까지 인용이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 최근 논문들은 인용될 시간적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서 누적 인용횟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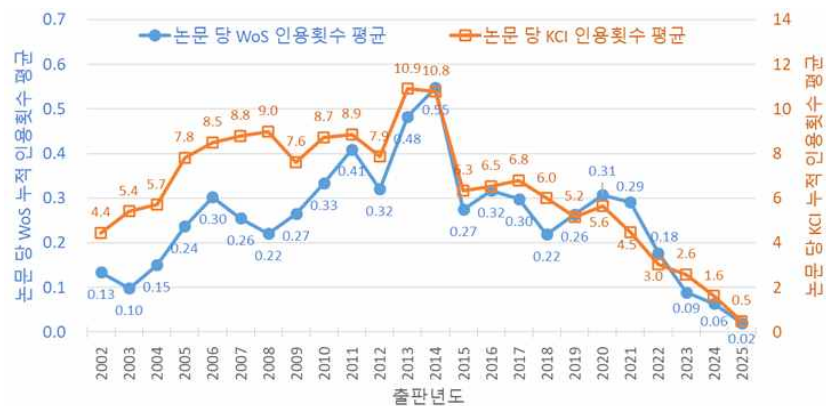


〈그림 2〉 4종 학술지 전체의 인용횟수 추세

인용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3년 WoS 논문부터 KCI 논문 인용이 파악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한 자리 수의 인용만 발생하였다. 2010년부터 인용이 두 자리 수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 100회 이상으로 급증하여 2022년 194회를 정점으로 하면서 매년 150회 내외의 KCI 논문 인용이 발생하고 있다. 2026년에는 6월까지 현재 전년도 169회의 절반이 넘는 91회의 인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말까지는 2025년의 인용횟수 뿐만 아니라 2022년

의 194회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총 인용횟수는 출판 논문수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출판년 기준 인용횟수를 그해 발행된 총 논문수로 나누어서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를 산출해보았다. 〈그림 3〉에서는 WoS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와 KCI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를 출판년도별로 표시하되,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서 KCI의 평균 인용 횟수를 20배 높은 수준으로 표시하여 WoS의 평균 인용 횟수와 스케일을 맞추었다.



〈그림 3〉 WoS와 KCI에서의 출판년도별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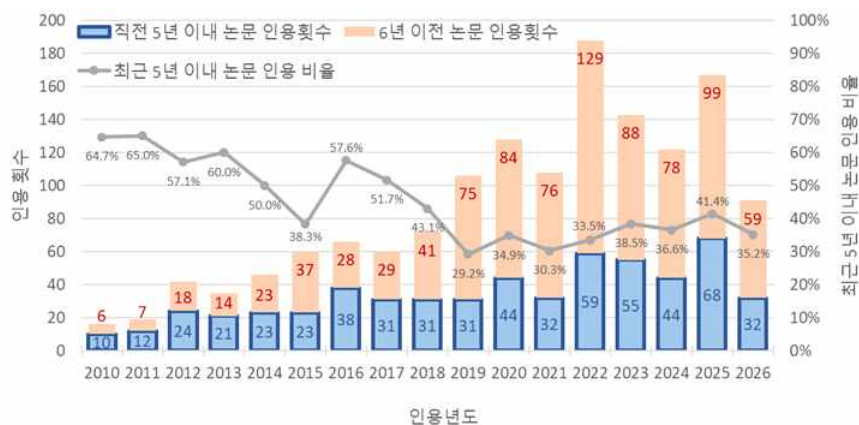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듯이 해외와 국내 모두 2013년과 2014년 출판 논문이 최상위에 포함되어 있다. 4종 학술지 논문이 WoS에서 인용된 논문 당 평균 횟수(미인용된 KCI 논문 포함)는 2014년 출판 논문이 0.55회로 가장 높고 2013년 출판 논문이 0.48회로 그 다음이었다. KCI에서 인용된 논문 당 평균 횟수(미인용된 KCI 논문 포함)는 2013년과 2014년 출판 논문이 각각 10.9회와 10.8회로 최고 수준이었다. 2010년 이후 4종 학술지 논문이 WoS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와 KCI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956에 달하여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용 수준의 차이는 크지만 해외와 국내에서 인용이 많거나 적은 경향은 출판년도 별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WoS에서의 평균 인용횟수는 KCI에서의 평균 인용횟수에 비해 4.6% 수준이었으며, 2019년 이후만 비교하면 4.9% 수준이어서 KCI에서의 인용이 약 20배 정도 많았다. 이처럼 KCI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서 인용되는 정도는 아직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4.2 국내 학술지의 WoS 5년 영향력 지수 추정

매년 인용된 논문 중에서 인용지수 산출에 주로 활용되는 직전 5년 이내(평가년도 Y년 기준으로 Y-5년 이후부터 Y-1년까지) 발행된 논문의 인용 추세만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만 표현한 이 그림에서 직전 5년 이내 논문 인용횟수는 당해년도 인용을 제외한 것이고, 최근 5년 이내 논문 인용 비율은 당해년도 인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직전 5년 논문에 대한 인용횟수는 4종 합계 2010년 10회에서 2025년 68회로 연평균 13.6%씩 증가하였다. 그런데 6년 이전 논문에 대한 인용횟수는 4종 합계 2010년 6회에서 2025년 99회로 연평균 20.5%씩 증가하였다. 오래된 논문에 대한 인용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인용할 만한 오래된 KCI 논문 집합이 누적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보면 직전 5년 논문



〈그림 4〉 인용년 기준 해외 인용 건수와 최근 5년 이내 논문 인용 비율

인용횟수는 연평균 11.9% 성장, 6년 이전 논문에 대한 인용횟수는 연평균 13.4% 성장했다.

직전 5년 이내 논문에 대한 인용횟수를 기반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의 WoS 5년 영향력 지수(5 year journal impact factor; 이하 5Y JIF로 표기)를 가상으로 추정해보기로 한다. WoS에서 두 자리수 이상의 인용이 포착된 2010년 이후, 직전 5년 이내 논문에 대한 인용횟수를 발행 논문수로 나눈 5Y JIF 추정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는 5Y JIF가 반올림해서 0.1이 되는 0.05 이상인 경우를 빨간색 굵은 글씨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이렇게 추정한 5Y JIF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Journal Citation Report(이하 JCR로 표기)의 Information Science & Library Science(이하 IS&LS로 표기) 분야 172종의 지표를 확인해보았다. JCR에서는

영향력 지수를 소숫점 아래 한 자리까지만 발표하고 있는데, 5Y JIF가 산출된 160종 중 최하위 5종이 0.1로 공표되어 있다. 이 5종 학술지의 상세 정보를 JCR에서 확인하여 상세한 5Y JIF 값을 계산해보면 한 종만 0.055로 1.0 미만이고, 나머지 4종은 0.1에서 0.15 사이의 값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내 4종 학술지가 WoS에서 인용되는 정도는 기존 JCR 등재지의 최하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국내 학술지에 대한 WoS 논문의 인용은 이 연구에서 직접 파악한 것이므로, WoS에서 실제로 인용을 식별하게 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4종 학술지의 자기인용까지 포함하면 인용지수는 추정치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나친 자기인용은 JCR 등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의 해외 인용색인 등재를 추진하려면 현재보

<표 5> 4종 학술지의 5Y JIF 추정값

측정년도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종 평균
2010	0.023	0.000	0.009	0.000	0.008
2011	0.013	0.007	0.008	0.011	0.010
2012	0.019	0.013	0.025	0.018	0.019
2013	0.023	0.003	0.024	0.019	0.016
2014	0.017	0.011	0.030	0.013	0.018
2015	0.039	0.006	0.015	0.016	0.018
2016	0.054	0.019	0.023	0.026	0.029
2017	0.063	0.008	0.022	0.010	0.024
2018	0.026	0.022	0.017	0.036	0.025
2019	0.059	0.014	0.006	0.032	0.026
2020	0.056	0.046	0.022	0.026	0.037
2021	0.037	0.027	0.037	0.012	0.028
2022	0.038	0.049	0.055	0.069	0.053
2023	0.079	0.044	0.048	0.027	0.049
2024	0.052	0.016	0.040	0.052	0.039
2025	0.066	0.080	0.050	0.040	0.059

다 해외 학술지에 의한 인용을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5.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특성

5.1 인용 논문의 출처 학술지 분포

이 장에서는 한국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하는 해외 학술지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WoS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학술지 논문만 아니라 학술대회 논문도 포함된다. KCI 학술지 4종을 인용한 논문도 문헌 유형이 학술대회 논문(Proceeding Paper)인 경우가 74건(7.6%)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한 학술대회 자료집은 한두 편의 논문에서만 KCI 학술지를 인용하였으므로, 주요 출처에는 학술대회 자료집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의 인용 출처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학술지라고 표현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종 학술지를 한 편이라도 인용한 출처(학술지 또는 학술대회논문집)는 총 460종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전체 인용한 논문 중 1% 이상인 1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 17종에 대한 정보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인용 횟수는 한 논문에서 4종 학술지 논문을 여러 건 인용한 경우를 모두 반영하여 집계한 것이고, 평균 출판년은 4종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각 논문의 출판년도의 평균값이다.

가장 많은 인용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39편(4.0%)이 게재된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였는데, 이 학술지는 4종 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120회(8.6%)나 되고 평균 출판년도도 2021.3년으로 비교적 최근이어서,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대한 해외 인용이 최근 증가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 분야를 살펴보면 1위를 비롯해서 절반이 넘는 9종이 IS&LS 분야에 속하는 국제 문헌정보학 학술지였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정보학 중에서도 도서관경영이나 정보서비스 등의 영역을 주로 다루는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와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은 평균 출판년이 가장 오래된 2014.2년과 2017.4년이어서 KCI 4종 학술지를 인용하는 추세가 최근에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IS&LS 분야에 속하는 학술지는 대부분 논문 수 비율보다 인용횟수 비율이 더 높다. 이는 주로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친숙한 연구자들이 국내 논문을 한꺼번에 여러 건 인용하면서 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상위 학술지는 보건환경 또는 다학제 분야, 공학 및 컴퓨터과학, 간호학 등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 속하였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분야를 넘어 연구평가, 연구데이터, 오픈사이언스,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타 분야에 속하는 학술지는 대부분 논문 수 비율보다 인용횟수 비율이 더 낮으므로, 국내 문헌정보학계와 관련이 없는 타 분야 저자가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을 한 건씩 인용하며 해외 학술지에 출판한 경

〈표 6〉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을 인용한 주요 WoS 학술지

학술지	논문 수 (비율)	인용 횟수 (비율)	평균 출판년	주제분야(SC)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9(4.0%)	120(8.6%)	2021.3	IS&LS
Sustainability	26(2.7%)	32(2.3%)	2022.2	Science & Technology - Other Topics; Environmental Sciences & Ecology
Scientometrics	24(2.5%)	44(3.1%)	2019.8	Computer Science: IS&LS
Library Hi Tech	22(2.2%)	68(4.9%)	2018.2	IS&LS
Electronic Library	21(2.1%)	58(4.1%)	2018.7	IS&L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1.7%)	46(3.3%)	2014.2	IS&LS
Libri-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tudies	17(1.7%)	31(2.2%)	2019.7	IS&L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5(1.5%)	38(2.7%)	2017.4	IS&L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5(1.5%)	31(2.2%)	2020.3	Computer Science: IS&LS
Information Research-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2(1.2%)	16(1.1%)	2019.0	IS&LS
Science Editing	12(1.2%)	16(1.1%)	2019.8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1.2%)	15(1.1%)	2020.7	Environmental Sciences & Ecology; Public,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1.1%)	30(2.1%)	2021.9	IS&LS
Information Development	11(1.1%)	13(0.9%)	2021.4	IS&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1(1.1%)	12(0.9%)	2018.8	Nursing
IEEE Access	11(1.1%)	11(0.8%)	2021.9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Telecommunications
PLOS ONE	10(1.0%)	12(0.9%)	2023.7	Science & Technology - Other Topics

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인용한 학술지의 출판 국가는 영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발행되며 KCI 등재지이기도 한 *Science Editing*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문 국제학술지가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해외 확산에 일정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5.2 인용 논문 저자의 소속 국가와 기관

5.2.1 저자 소속 국가 분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저자가 속한 국가는 총 72개국이었는데 이중에서 10편(1%) 이상을 발표한 국가는 12개국, 5편(0.5%) 이상을 발표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는 역시 한국으로 541편(55.3%)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익숙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지속적으로 인용한 결과이므로 당연하다.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이 143편(1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108편(11.0%)으로 뒤를 이었다. Mondal과 Das(2024)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별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에서 미국과 중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을 미국보다 중국 연구자가 더 많이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조재인(2024)이 최근 5년간의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과학계량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여도가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1위로 나타난 것에는 인용된 국내 논문의 주제적인 특성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00건 이상인 3위 이상에 비해서, 4위 이하는 30건 대로 큰 격차를 보인다. 파키스탄(3.8%), 인도(3.2%), 말레이시아(2.4%), 이란(1.8%)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인(2.1%), 오스트레일리아(1.8%), 캐나다(1.7%), 영국(1.5%)도 주요 인용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핀란드, 대만, 브라질, 독일,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의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국제적 활용 범위가 특정 권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5.2.2 저자 소속기관 분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저자가 속한 기관은 총 715개였는데, 이중에서 두 편 이상인 경우는 247개 기관에 불과했고, 468개 기관이 한 편의 논문에서만 저자 소속기관으로 출현했다. 이는 앞서 국가 수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활용 기반이 다양한 국가와 연구기관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0편(1%) 이상인 기관은 24개, 5편(0.5%) 이상인 기관은 56개였다.

상위 기관은 대부분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인용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건국대(48편, 4.9%)였으며, 연세대(44편), 성균관대(40편), 서울대와 KISTI(각 32편), 고려대(26편), 중앙대(24편), 이화여대와 경북대(각 23편), 경희대(22편)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10위 이내 기관이 모두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인 것은 앞서 국가 분석에서 한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결과와 일관되며,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24개 기관 가운데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문헌정보학 연구가 활발한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이들 기관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된 것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체들이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학술지를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대(공동 4위), 고려대(6위), 경희대(10위)를 비롯하여 KAIST(공동 13위), 가천대(공동 15위), 한양대(17위), 연세대학교 의료원(공동 23위) 등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내 기관도 주요 인용 기관에 포

함된 것이다. 이들 기관의 논문은 문헌정보학 고유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보건의료, 공학, 도시 계획, 교육, 경영학 등 각 기관의 전공 기반과 결합된 다양한 연구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국내 타 분야 연구자의 학제적 활용을 통해 해외로 소개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상위 기관 가운데 해외 기관은 중국의 Wuhan University(공동 13위), 미국의 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와 파키스탄의 University of Sargodha(각 공동 20위)였다. Wuhan University의 인용 논문은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에 속했으며, 동일 연구자들이 정보행태 연구의 구조와 변화, 이용자 경험, 계량지표 등을 연속적으로 다룬 사례가 포함되었다. University of Sargodha는 인용 논문 모두가 문헌정보학 분야였으며, 11편 중 9편에 M. A. Naveed가 참여하였다. 연구 주제도 대부분 대학생과 다양한 직업군의 정보리터러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사례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해외 특정 문헌정보학 연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에서는 문헌정보학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한국계 연구자 또는 한국 연구자와의 공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과 연계된 연구자 네트워크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을 매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 기관의 인용은 주로 WoS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Wuhan University의 계량정보학 및 정보행태 연구 집단, University of Sargodha의 정보리터러시 연구자, State University System

of Florida의 한국계 연구자 및 한국 관련 공동 연구자처럼 기관별로 비교적 뚜렷한 연구자 네트워크나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3 인용 논문의 학문분야와 연구주제

5.3.1 출처 학술지의 학문분야

WoS의 학문분야(Subject Category) 기준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 IS&LS를 비롯해서 총 84개의 학문분야가 확인되었다. 다만 WoS는 하나의 학술지에 둘 이상의 학문분야를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Computer Science: IS&LS'와 같은 복합 분류는 IS&LS로만 분류된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의 범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해당 출처가 단일 분야보다 학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임을 의미하므로 실제 학문적 정체성을 보다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합하여 사용된 경우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면 총 153개의 학문분야 범주가 확인된다. 153개 분야 중에서 1%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학문분야는 17개이며, 이들 상위 분야의 논문은 714편으로 전체 978편의 73.0%에 이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역시 IS&LS로 304편(31.1%)이었으며, 여기에 복합 범주인 'Computer Science: IS&LS' 소속 88편(9.0%)을 합하면 전체의 40.1%에 달하였다. 'Computer Science' 단독 분야이거나 'Engineering' 등의 타 분야와 융합된 컴퓨터과학 관련 분야의 논문은 223편(22.8%)에 이른다.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과학 이외에도 교육학(3.3%), 경영경제학

(3.0%), 커뮤니케이션(2.4%), 간호학(2.1%), 심리학(1.8%), 공중/환경/직업보건학(1.2%), 의료정보학(1.0%), 언어학(1.0%)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분야 가운데 환경과학 및 생태학과 관련된 분야도 있었는데 MDPI에서 발행되는 대규모 학술지인 *Sustainability*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가 속한 분야였기 때문이며, 환경과학 및 생태학 분야 전반에서 폭넓게 인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출처 중수와 중당 평균 논문 수도 학문분야별 차이를 보여준다. IS&LS는 72종의 다양한 출처에서 평균 4.2편의 인용 논문이 게재되어 가장 폭넓은 학술지 기반을 형성하였다. 반면 Computer Science는 55종의 출처에 분산되어 있으나 중당 평균은 1.2편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술지에서 산발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앞 절에서 확인한 주요 인용 학술지의 특성과도 일치하며,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국제적 확산은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정보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매개로 인접 학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3.2 인용 토픽에 나타난 연구주제

WoS 논문에는 인용분석을 거쳐서 형성된 군집인 인용토픽(Citation Topic)이 지정된다. 인용토픽은 대-중-소(Macro-Meso-Micro)의 3단계로 계층적으로 지정된다(InCites Benchmarking & Analytics, 2026). 여기서는 논문의 세부 주제 분석을 위하여 가장 상세한 단위인 인용토픽-소분류를 분석하였다.

신규 논문이 WoS에 등록된 이후 인용분석을 거쳐 인용토픽이 지정되므로 일부 최신 논문에는 인용토픽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 978편 가운데 948편에 인용토픽-소분류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확인된 소분류 토픽은 총 236개였다. 이 가운데 10편(1%) 이상이 포함된 토픽은 15개, 5편(0.5%) 이상이 포함된 토픽은 32개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한 상위 32개 토픽에 속한 논문은 644편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65.8%를 차지한다. 236개의 토픽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41개의 토픽에는 1편씩의 논문만 소속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해외 인용이 일부 핵심 주제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매우 다양한 세부 주제 연구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논문이 포함된 토픽은 Digital Libraries로 189편(19.3%)이었으며, 이어 Bibliometrics가 114편(11.7%)으로 나타났다. 두 토픽을 합하면 전체 논문의 31.0%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해외 인용이 디지털도서관과 계량정보학이라는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다음으로는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 44편(4.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Consumer Behavior, Innovation Strategies, Strategic Foresight and Roadmapping 등 이용자 행동과 신기술 및 혁신 수용에 관련된 토픽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특성뿐 아니라 이용자의 수용, 만족,

〈표 7〉 인용한 WoS 논문이 속한 주요 인용토픽-소분류

인용토픽-소분류	논문 수	비율(%)	인용토픽-소분류	논문 수	비율(%)
4,48,228 Digital Libraries	189	19.3	1,14,265 Nursing Education	8	0.8
6,238,166 Bibliometrics	114	11.7	6,11,295 Science Education	8	0.8
6,3,368 Technology Acceptance Model	44	4.5	6,10,502 Data Envelopment Analysis	7	0.7
1,273,870 Digital Health Literacy	32	3.3	6,288,1782 E-books In Libraries	7	0.7
4,48,2815 Topic Modeling Methods	26	2.7	1,136,536 Disabilities	7	0.7
6,321,2444 Research Data Management	18	1.8	4,187,2766 Blockchain Applications	6	0.6
6,3,65 Consumer Behavior	15	1.5	4,48,120 Complex Networks	6	0.6
6,185,184 Media And Politics	15	1.5	6,185,2790 Ethical And Trustworthy Ai	6	0.6
4,48,817 Recommender Systems	13	1.3	1,112,161 Dementia Caregivers	6	0.6
6,3,2 Innovation Strategies	13	1.3	4,224,599 Digital Construction	6	0.6
4,48,672 Natural Language Processing	13	1.3	6,11,31 Self-regulated Learning	6	0.6
6,294,1807 Strategic Foresight And Roadmapping	11	1.1	6,69,218 Reading Acquisition	6	0.6
6,185,1004 Digital Media Impact	11	1.1	1,112,297 Cancer Survivors	6	0.6
6,288,2091 Digital Archiving	11	1.1	6,185,1644 Digital Privacy And Data Protection	5	0.5
4,284,1027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10	1.0	1,44,1069 Digital Mental Health	5	0.5
4,48,322 Ontology And Knowledge Graphs	9	0.9	10,144,2489 Socialist Feminism And Gender History	5	0.5

행동의도 및 조직적 활용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술 수용모형과 소비자행동 관련 연구는 앞서 확인된 경영경제학 및 심리학 분야의 인용과 연결되며,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이용자 연구를 매개로 인접 사회과학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gital Libraries 토픽 이외에도 정보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토픽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Topic Modeling Methods, Recommender System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ntology and Knowledge Graphs, Complex Networks 등이 상위 토픽에 포함되었으며, Blockchain Applications, Ethical and Trustworthy AI,

Digital Privacy and Data Protection과 같이 최근의 디지털 기술 및 정보윤리 문제와 관련된 주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전통적인 도서관 연구를 넘어 텍스트 분석, 인공지능, 지식표현, 네트워크 분석 및 데이터 보호 등 컴퓨터과학과의 융합 영역의 해외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학문분야 분석에서 컴퓨터과학 단독 또는 문헌정보학, 공학, 통신 분야와 결합된 복합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는 주제 구성이다.

도서관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문적 실무 영역도 주요 인용 주제로 나타났다. Research Data Management, Digital Archiving, E-books in

Libraries는 연구데이터, 디지털 보존,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토픽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가 대학도서관과 디지털 정보환경의 실무적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Digital Health Literacy, Nursing Education, Disabilities, Dementia Caregivers, Cancer Survivors, Digital Mental Health와 같이 토픽 번호가 1로 시작하는 인용토픽-대분류 임상의학 및 생명과학에 속한 주제들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앞서 학문분야 분석에서 간호학, 보건학 및 의료서비스 분야가 확인된 결과와 연결된다.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개발되거나 활용된 정보행동, 정보리터러시,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분석의 개념과 방법이 건강정보 활용, 간호교육, 돌봄 및 장애인 정보접근 문제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Digital Health Literacy는 32편(3.3%)으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 문헌정보학의 정보리터러시 연구 중에서도 건강정보리터러시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KCI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주제는 디지털도서관과 계량정보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기술수용과 이용자행동,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연구데이터관리와 디지털 보존, 보건정보와 정보리터러시 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국제적 영향이 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정보기술과 이용자 연구를 매개로 사회과학, 공학,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의 연구성과가 WoS 등재 논문에서 인용되는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KCI 인용성과와 비교하여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 커뮤니티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된 논문의 WoS 평균 인용횟수와 1회 이상 인용된 논문 비율은 KCI에 비해 크게 낮아 국제적 활용 범위가 아직 제한적이었으나, WoS 인용은 장기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이후에는 연간 100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학술지별 WoS 인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WoS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된 논문에서는 범용적인 연구 방법, 국제적으로 공유 가능한 연구주제, 영문 작성 및 해외 연구자 참여 등의 특성이 관찰되었다. KCI와 WoS의 인용성과가 일부 분석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점도 국내 인용과 국제 인용이 동일한 조건에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학술지를 인용한 WoS 논문의 저자는 다양한 국가와 기관 소속으로 분포하였지만 한국 연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를 통해서 국내 연구자가 국제 학술지에서 국내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로와 해외 연구자가 이를 직접 활용하는 경로가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 분야와 주제는 문헌정보학 중에서도 정보학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컴퓨터 과학, 교육, 경영, 보건의료 등 인접 분야로 확장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WoS 인용은 국내 연구성과가 서로 다른

연구공동체와 연구 네트워크를 거쳐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으로 편입되는 선택적인 지식 확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국내 연구가 학술지의 국제화 조건이나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지 출판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연구는 WoS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인용을 논문 수준에서 직접 추적함으로써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 학술지에서 소비되는 규모와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관찰된 인용관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인용의 경로를 탐색한 것으로, 특정 요인이 WoS 인용을 증가시키는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선행연구(Wang & Zhang, 2018; Wang et al., 2024)에서 제시된 지리적, 사회적 근접성에 따른 지식 확산의 차이와 본국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국내 학술논문의 국제적 영향력 확산 경로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혜진 (2024).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저널의 자아 인용정체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2), 1-18. <http://doi.org/10.3743/KOSIM.2024.41.2.001>
- 신은자, 최화윤, 서태설 (2015). 해외 영향력 확산을 위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KoreaScience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59-177. <http://doi.org/10.4275/KSLIS.2015.49.4.159>
- 윤정원 (2024).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술지 국제화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 이종욱, 김수정, 오상희 (2023).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365-386. <http://doi.org/10.4275/KSLIS.2023.57.1.365>
- 이종욱, 박혜린 (2016).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논문 계량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자 특성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17-242. <http://doi.org/10.16981/kliss.47.201603.217>
- 이혜경, 양기덕, 오동근 (2019). 국내외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 게재논문 패턴 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와 사회과학인용색인(SSCI)를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493-510.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493>
- 장연미, 이재윤 (2024).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사사표기 유형 구분과 계량서지적 특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1), 313-3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13>
- 정유경 (2023).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의 연구영역 중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0(4), 259-277. <http://doi.org/10.3743/KOSIM.2023.40.4.259>

- 조재인 (2024).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의 국제적 성과와 격차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19-242. <http://doi.org/10.16981/kliss.55.2.202406.219>
- 최은주, 양기덕 (2018).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연구업적의 계량적 분석: 2001-2016.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1(1), 55-86. <http://doi.org/10.22417/DPSS.2018.4.11.1.55>
- InCites Benchmarking & Analytics (2026). Citation topics. Available: <https://incites.zendesk.com/hc/en-gb/articles/22514077746961-Citation-Topics>
- Kim, M.-J. (2010). Visibility of Korean science journals: an analysis between citation measures among international composition of editorial board and foreign authorship. Scientometrics, 84(2), 505-522. <https://doi.org/10.1007/s11192-010-0168-x>
- Moed, H. F., de Moya-Anegón, F., Guerrero-Bote, V., & López-Illescas, C. (2020). Are nationally oriented journals indexed in Scopus becoming more international? the effect of publication language and access modality. Journal of Informetrics, 14(2), 101011. <https://doi.org/10.1016/j.joi.2020.101011>
- Mondal, H. & Das, A. (2024). Exploring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a scientometrics analysis from a global perspective.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Article 8225.
- Tijssen, R. J. W., Mouton, J., van Leeuwen, T. N., & Boshoff, N. (2006). How relevant are local scholarly journals in global science? a case study of South Africa. Research Evaluation, 15(3), 163-174. <https://doi.org/10.3152/147154406781775904>
- Wang, J. & Zhang, L. (2018). Proximal advantage in knowledge diffusion: the time dimension. Journal of Informetrics, 12(3), 858-867. <https://doi.org/10.1016/j.joi.2018.07.006>
- Wang, J., Frietsch, R., Neuhäusler, P., & Hooi, R. (2024). International collaboration leading to high citations: global impact or home country effect? Journal of Informetrics, 18(4), 101565. <https://doi.org/10.1016/j.joi.2024.10156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Jane (2024).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achievements and inequality in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219-242. <http://doi.org/10.16981/kliss.55.2.202406.219>
- Choi, Eun-Joo & Yang, Ki-Duk (2018). A bibliometric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2001-2016.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1(1), 55-86.

- <http://doi.org/10.22417/DPSS.2018.4.11.1.55>
- Jang, Yeonmi & Lee, Jae Yun (2024). Acknowledgement types and bibliometric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13-3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13>
- Jeong, Yoo Kyung (2023). Overlap analysis of research areas in fou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4), 259-277. <http://doi.org/10.3743/KOSIM.2023.40.4.259>
- Kim, Hea-Jin (2024). A comparative analysis of ego-centered journal citation identiti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1-18. <http://doi.org/10.3743/KOSIM.2024.41.2.001>
- Lee, Hyekyung, Yang, Kiduk, & Oh, Dong-Geun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journal publication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KCI and SSCI.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493-510. <http://doi.org/10.16981/kliss.50.4.201912.493>
- Lee, Jong-Wook & Bak, Hye-Rin (2016). Characteristics of Korean researchers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LIS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17-242. <http://doi.org/10.16981/kliss.47.201603.217>
- Lee, Jongwook, Kim, Soojung, & Oh, Sanghee (2023).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onlin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365-386. <http://doi.org/10.4275/KSLIS.2023.57.1.365>
- Shin, Eun-Ja, Choi, HeeYoon, & Seo, Tae-Sul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for enhancing the global influence: an analysis on Korea 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159-177. <http://doi.org/10.4275/KSLIS.2015.49.4.159>
- Yoon, JungWon (2024). Glob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59-380. <http://doi.org/10.3743/KOSIM.2024.41.3.359>

